

# 황우여 “5·18 왜곡 방송은 국민에 대한 모욕”

5·18 역사왜곡대책위, 국회·청와대 방문

김한길 민주 대표·이정현 靑 수석도 “재발 막아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 요청도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정현 청와대 정부수석은 29일 ‘북한군 침투설’ 등 일부 종합편성 채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방송’과 관련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와 김 대표, 이 수석은 이날 각각 국회와 민주당사, 청와대에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황 대표는 “중편의 방송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면서 “5·18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민원주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당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도 황 대표가 ‘일부 보수 성향 네티즌의 5·18 매도행위에 대해 정부가 용납하면 안 된다’는 요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유일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표는 5·18 대책위 인사들에게 ‘5·18 왜곡방송’이 되풀이되지 않

기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입법 문제를 비롯한 대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승래 비서실장이 소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대책위 인사들과 만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훼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5·18 대책위 인사들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방문, 5·18 역사왜곡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진 대책위 단장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어렵게 넣었지만 중학교 교과서에는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이 빠져 있다”며 “헌법 전문에도 3·1

운동과 4·19 혁명뿐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도 추가, 올곧게 518 정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다음달 1일 광주시청에서 ‘제2차 비상사국회의’를 열어 역사 왜곡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는 30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미디어홍보 특별위, 광주시 5·18 역사왜곡 대책위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강기정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그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도 이날 종합편성채널 방송인 TV조선과 채널A를 향한 방문해 성명서와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5·18 역사 왜곡을 한 해당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및 기획자 등 책임자 징계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2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가 2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질박한 색채·거친 질감에 담긴 ‘한국적 모성’



(30) 사모(思母)

오월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만 헤아리고 ‘엄마 생각’을 가슴에만 갇어놓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어느 정도 나이 먹은 세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는 불러도 엄마를 어머니라 부르기는 여전히 어색한 것 같다. 누구에게나 엄마에 대한 정서는 특별한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가장 순수한 의미로, 세속적인 썬범 없이 온전한 사랑을 넘치게 나눠줄 이 엄마 말고 누가 있을까? 이 마음을 담아 김초혜 시인 역시 ‘사모곡’에서 노래했다.

“...손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단 것만 익혀/단 줄 모르는 자식/처음대로/한 몸으로 돌아가/서로 바꾸어 태어나면 어쩌하리”

한국 사람들이 떠올리는 황우여린 엄마의 이미지를 박수근(1914~1965)의 작품 ‘모자(母子)’에서도 본다. 소박하면서도 고전적인 모습의 엄마가 아이를 포근히 안고 껴안고 있다. 따뜻한 마음으로 새겨볼 수 있을 것 같다. “손가락이 열 개인 것은/어머님 배 속에서/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태아의 노력 때문 일지도 모릅니다”(‘성선설’)

박수근은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기성 화단의 무시와



박수근 작 ‘모자’

소속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서구인들의 예호와 호평을 한 몸에 받은 화가이기도 하다.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기를 갈망해서 늘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았고, 그 결과 고향 땅 양구의 산과 들을 담은 작품 세계를 일궜다. 고향 땅에 널린 화강암에서 비롯한 회색 등 무채색 계열의 질박한 색채와 두꺼운 표면 질감의 화폭으로 자신만의 예술 형식을 완성한 것이다.

한국적 모성을 그려낸 박수근의 ‘모자(母子)’를 보자면 환민복 시인의 시처럼 이 땅의 모든 자식들이 엄마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볼 수 있을 것 같다. “손가락이 열 개인 것은/어머님 배 속에서/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태아의 노력 때문 일지도 모릅니다”(‘성선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국방부, 정말 이래도 되나?

“5·18때 북한군 특수부대 투입” 말도 안된 주장에

명쾌한 입장 밝히지 않아 되레 논란의 여지 남겨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가 29일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혀, 미묘한 논란을 부르고 있다.

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 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명쾌하게 밝히지 않아 되레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민주당 김관진 의원실에 “군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2년 반 동안이나 조사했으며 보고서에는 북한군 특수부대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현재 국방부가 그것보다 더

(조사) 잘할 수는 없다”며 “이에 따라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답변서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22일 광주시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공식 답변서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해 오만한 태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관진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가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일일이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국방부 측에서는 대변인이 광주시의 사실 확인 요청 사안에 대해 한 차례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고 국회 국방위에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방부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2007년 7월24일)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은행 분리매각, 지역에 맞게 특화·발전시켜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우리은행 노조와 간담회서 밝혀

더 이상은 못봐주겠다

장병완(광주 남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우리금융의 민영화와 관련, 자회사인 광주은행은 분리매각을 통해 지역에 맞게 특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지방은행 분리 매각은 지난해 이미 개정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이 사안은 영호남 모두 관련된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법률안 통과를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광주은행 노조 위원장은 “지방은행 분리매각 과정에서 지역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매각 기일이 보장돼야 한다”며 분리매각시 대형 민간 금융기관에 의한 일방적 인수를 우려했다.

한편,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며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매각의 현실화 등을 고려, 지방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3 04.20-10.20

호남 지역 농축수 특산품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농산물 축제

2013 06.07-06.09 3일간

순천 팔마경기장

행사안내

첫째날 6월 7일(금요일) 축하공연 19:00~21:00  
시군예술단공연 | 다문화가족 장기자랑(예선) | 시낭송대회 | 농산물개장식 | 식전공연(난타) | 개막식 | 유명가수 축하콘서트

둘째날 6월 8일(토요일)  
시군예술단공연 | 나도스타다 | 다문화가족 장기자랑(본선) | 아줌마가요제(예선) | 추억의7080콘서트

셋째날 6월 9일(일요일)  
시군예술단공연 | 아줌마골든벨 | 완상의 매직쇼 | 아줌마댄스 경연대회 | 아줌마가요제결선 | 유명가수 축하콘서트

공연장여신청 http://cafe.daum.net/azim2 문의사항 062-220-0555

주최 순천시 617 광주일보사  
주관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아리오커뮤니케이션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 수협 KB국민은행 NH농협 광주지역본부 NH농협 전남지역본부